

대기업 “불확실성 지속에 투자계획 미정”… 규제·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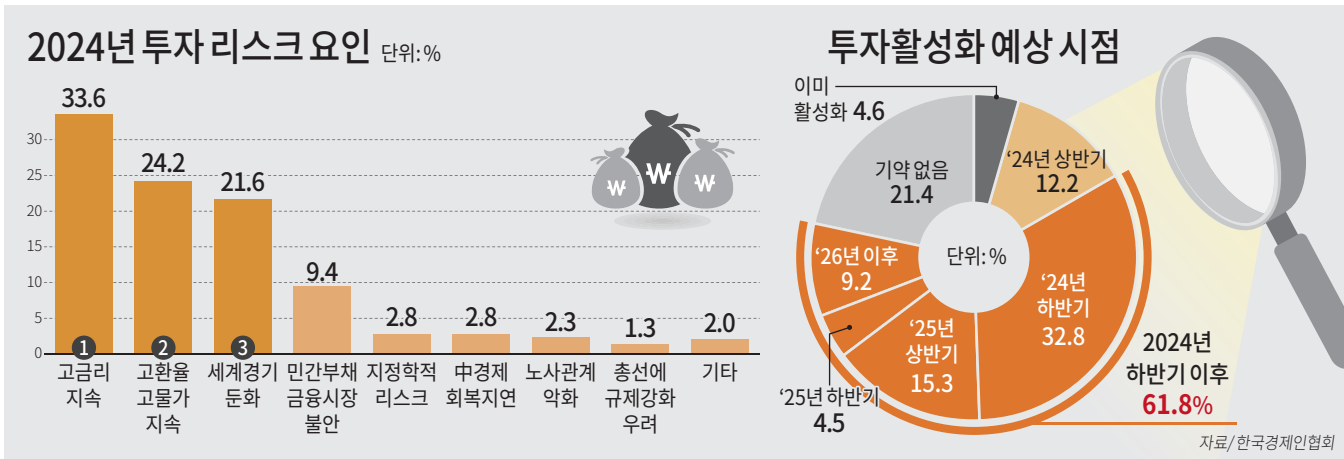
한경협,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
50% “투자 미정”, 5% “계획 없음”
계획수립 28.8% “올해보다 확대”
“금융·세제 등 지원책 마련 시급”

글로벌 위기 속대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함께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 131개사 중 49.7%는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해(38%)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곳도 5.3%나 됐다.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가 10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지난 7월 발표치(2.4%)보다 축소 조정된 상태, 기



업들은 ‘불투명한 경제전망(31.6%)’과 ‘원가 상승 리스크 확대(26.6%)’, ‘금융 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14.3%)’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45%) 중에서는 28.8%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13.5%)보다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61%였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0.2%로 전년(19.2%)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한경협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시장 변화를 위

한 투자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 중 37.3%가 ‘성장동력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불황기 적극 투자로 경쟁력 확보’도 7.8%가 있었다. 합치면 45.1%에 달한다. 경제 전망 양호(25.5%)라는 응답도 많았다. 업황 개선 기대감(15.7%)도 적지 않았다.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32.8%가 이렇게 예측했다.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은 12.2%로 45%가 내년 중으로 투자 확대

본격화를 점쳤다.

다만 경기 침체는 투자 리스크로 여전히 유효했다. 기업들은 투자에 부정적 영향으로 ‘고금리 지속’을 33.6%,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24.2%, ‘글로벌 경기 둔화’를 21.6% 문제로 들었다. 민간부채 위험(9.4%)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경협은 “물가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은의 목표물가 수준인 2%를 상회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필요로 했다. 투자에 어려움으로 ‘시설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28.8%)’, ‘ESG 규제와 관련 지원 부족(18.1%)’, ‘신산업 진입 규제(14%)’ 등을 애로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및 세제지원 강화(22.6%)’ 등 자금 사정 개선대책과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 ‘금융지원 확대(12.7%)’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실적 부진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우리경제에 고무적 조짐으로 해석된다.”라며, “투자심리를 확실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韓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한은, 수출 개선흐름·지속가능성 평가
“고금리 지속 땀 철강·기계 등 대중 수출회복 지연 가능성 ↑”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개월간 우리나라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됐다. 실질적으로 수출 물량과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 회복세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간한 ‘최근 수출 개선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부진하던 한국 수출은 올해 2분기부터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과 11월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7.8% 증가했다.

다만 수출증가 속도는 과거 글로벌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최근 수출 개선 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금융위기 등에 비하면 더딘 상황이다. 수출단가와 물량을 구분해서 보면 지난 10월 수출단가는 화공품이 지난해 평균보다 89% 낮고, 석유제품 90%, 철강 85%, 반도체 67% 낮다.

한은 관계자는 “자동차와 함께 반도체

체는 인공지능(AI) 수요가 확대되고,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감산이 더해지며 물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최종재의 수출은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은 1분기 71억달러, 2분기 77억달러, 3분기 88억달러에서 10월 91억달러, 11월 97억달러로 늘어나는 반면 IT최종재의 월평균 수출액은 1분기 19억달러, 2분기 18억달러, 3분기 20억달러, 10월과 11월에 25억달러씩을 기록했다. 증가폭이 미약한 수준이다.

이날 한은은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IT최종재의 수출도 회복되며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통상 39~43개월 내외인데 이를 고려하면 내년 교체주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회복기를 보면 반도체 수출은 저점에서 평균 약 28개월 동안 상승하며 수출 회복을 이끌었다”며 “수출과 성장세 회복의 주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AI, 친환경 전환 등 신성장 산업 관련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투자 확대도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등 수출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수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고금리에 소비가 둔화되지만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향후 대미 수출은 양호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부진에 산업구조 고도화로 자금률이 높아져 대중 수출은 과거와 같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 대신 아세안5와 인도가 생산거점으로 부상해 반도체·화공품·석유제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구재를 포함한 재화의 소비 회복이 더딘 점은 우리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지속할 경우 철강·기계 등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익 11.4兆… 전년 동기비 47.2% ↑

2023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올해 보험사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가 늘었고, 회계제도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53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1조 4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다.

22개 생명보험사들의 순이익은 4조 3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4% 늘었다. 보험손익은 보장성 보험 판매 호조와 회계제도 변경으로 개선됐지만 금

리 상승에 투자손익은 악화됐다.

31개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은 7조 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했다. 역시 견조한 자동차보험 실적과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손익이 개선됐지만 금리 상승과 환율 하락에 투자손익은 악화됐다.

연초 이후 9월까지 수입보험료는 162조31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76조4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늘었지만 금리 변동폭 확대

와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저축성과 변액보험에서는 줄었다.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85조85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장기·자동차·일반보험 등이 모두 크게 늘었으며, 특히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가 영업 확대로 크게 증가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1.32%로 전년 동기 대비 0.5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06%로 전년 동기 대비 0.39%p 하락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각각 1153조4000억원, 168조1000억

〈총자산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 현황〉

(단위:%, %p)

구분		22년 1~9월(A)	23년 1~9월(B)	증감(B-A)
총자산이익률(ROA)	생명보험회사	0.41	0.71	0.30
	손해보험회사	1.75	2.91	1.16
	전체	0.78	1.32	0.54
자기자본이익률(ROE)	생명보험회사	5.84	5.49	△0.35
	손해보험회사	15.21	15.27	0.06
	전체	9.45	9.06	△0.39*

*당기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순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감독원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증가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4분기에는 손익과 재무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며 “재무건전성 취약이 우

려되는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영업, 대체투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